

보증한도 2배 초과...서민들, 빚 못갚으면 어쩌나

정책금융기관들, 코로나 대출 정부 지침따라 계속 신청 접수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자금 이달말 바닥...정부·금융권 고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신청이 폭주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관련 신용보증한도가 최고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자금도 이달 말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누적 신청액은 11조5000억원으로, 보증한도 5조원을 2배 넘겼다.

신청액 가운데 보증서가 발급된 비율은 34.8%(4조원)에 달한다.

이날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청액은 8100억원(1만7800건)으로, 이중 33.3%에 달하는 2700억원(8600건) 상당 보증서가 발급됐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채무 불이행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보증신청은 일단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 들어온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신청금액은 지난 달 말 기준 총 1조2301억원으로, 보증한도 1조원을 이미 넘겼다. 이 기간 광주지역 신청금액은 313억원이며 이중 69.6%에 해당하는 218억원에 대한 보증서가 발행됐다. 전남은 신청

금액 281억원 가운데 70.5%(198억원)가 보증됐다.

이 기관의 올해 1분기 일반보증 신규보증 공금액은 2조65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5%나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례보증자금은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신성장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신설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가계대출이 늘면서 광주·전남지역 지난해 신용보증잔액은 5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잔액은 5조4337억원을 기록

이는 전년 말과 비교해 3.7%(1940억원)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잔액 가운데 은행대출보증이 77.9%(4조2335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2금융권 보증은 18.3%(994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신용보증 규모는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55.6% 늘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1조9421억원 증가했다.

2010년 17.0%였던 2금융권 비중은 지난해 18.3%으로 1.3%포인트 높아졌다. 2금융권 보증잔액은 10년 새 67.8%(4019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신용보증 규모는 역대 최고액을 세웠지만 코로나19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관련 대출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57.08 (+31.32)	금리(국고채 3년) 0.996 (0.00)
↑ 코스닥 610.29 (+13.58)	↓ 환율(USD) 1217.30 (-0.60)

효성, 페트병으로 친환경 가방 만든다

환경부·제주도·효성티앤씨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

효성티앤씨(주) 친환경 섬유브랜드 '리젠'이 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13일 환경부·제주도·제주개발공사·플리츠마마 등과 친환경 프로젝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은 제주지역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 효성티앤씨가 이를 재활용한 칩을 이용해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제주'를 만든다. 이후 친환경 가방 제조 스타트업 '플리츠마마'가 해당 섬유로 최종 제품을 제작한다.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리젠제주는 오는 6월 5일 첫 출시될 예정이다.

의류용 섬유는 고순도로 길게 뽑아내야 하는 탓에 원재료인 재활용PET 칩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의류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류용으로 쓰이는 재활용(PET) 원료는 리사이클 체계가 잘 구축된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 왔다.

제주 삼다수는 제주 내 페트병을 별도 분리 수거해 의류와 가방에 적합한 원재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500ml 페트병 16개로 친환경 가방 1개를 만들 수 있다.



HYOSUNG

효성티앤씨와 환경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재활용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은 '그린경영 비전 2030'을 기반으로 전사적 친환경 경영을 추진해왔다"면서 "효성은 재활용 저탄소 소재 사업을 포함해 전 사업부에서 친환경 제품 확대 및 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티앤씨는 2008년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을 개발했으며, 같은 해 세계 최초로 글로벌 리사이클 표준 인증(GRS)도 획득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남 낙농가 우유 판매 30% 급감 농협 전남본부, 소비 촉진 운동

학교 급식 연기로 인해 전남지역 낙농가 우유 판매량이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3월~4월 중순 우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했다.

전국 사육 젖소 수는 4월 현재 40만 8000두이며,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52만5000t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가우당 한 달 평균 우유 소비량은 4.2kg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전남본부는 이날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우유와 함께하는 건강한 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운동에 나섰다.

김석기 본부장은 "우유 소비 부진으로 인한 유가공조합과 유업체, 낙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성인의 하루 우유 섭취 권장량 400ml로 '우유 한 잔 더 마시기'를 지역 소비자들에게 권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루 우유 2잔 마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가운데는 14일 학교급식 연기로 판매량이 30% 급감한 전남지역 낙농가를 돕기 위해 성인 하루 섭취 권장량 400ml를 알리는 '우유와 함께하는 건강한 회의'를 열었다.

전남 농작물 냉해 1519ha ...전국 5분의 1

배·대봉감 등 과수 96%
농식품부 일손 지원 등 추진

이달 5~9일 님새 동안 전남지역에서 총 1519ha에 달하는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일부 내륙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 저온으로 전남 1519ha 등 전국 7374ha 규모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피해 규모는 전국의 5분의 1 수준(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해 피해의 69%는 경남(1985ha), 경기(1581ha), 전남 등지에 집중됐다.

전남 피해 가운데 배와 대봉감 등 과수 피해가 95.9%(1456ha)를 차지했고 밭농사물(전작물) 21ha, 특작물 42ha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피해 농작물의 생육 관리와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 영양제 지원, 과수 인공수분과 열매 숙기 등에 필요한 일손 지원을 긴급 추진한다.

다음 달까지 지자체의 피해 조사 결과

를 토대로 6월 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 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 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온 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협 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 농가는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고 열매 숙는 시기를 늦추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 화훼농가돕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사진)에 동참했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꽃다발이나 화분 등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했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튜브, 배우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화훼농가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솔그룹 조연주 사장의 지목을 받아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임지선 대표는 다음 주자로 OCI그룹 이우현 부회장을 지명했다.



임지선 대표는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는 캠페인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꽃을 즐길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